

<2018년 8월 24일 금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<예비하는 것>은 ‘사람 편’ 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, ‘하늘 편’ 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행함으로 예비해야 된다.
2. 하나님은 ‘사랑하는 자의 말’ 을 들어주신다. <신부 시대>이니, 신부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는 것이다.
3. <예비할 때>는 신앙뿐 아니라, ‘모든 것’ 을 예비해야 된다.
4. 인생 살아서 존재하려면, ‘모든 것’ 을 준비해야 된다.
5. <태풍>도 ‘기도함’ 으로 예비하는 것이다. 천지 만물과 비바람 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주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신다.
6. 생활 가운데 큰 병이 들기 전에 빨리 발견해서 조치하는 것도 예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.
7. <예비할 때>는 항상 ‘자기’ 뿐 아니라 ‘상대’ 까지 두 가지를 해야 된다.
8. <자기>만 알고 예비해서는 안 된다. <하나님의 마음>도 알고 합당하게 예비해야 된다.
9. <신앙을 하는 자들>은 모든 것을 ‘하나님과 함께’ 예비해야 된다.

10. <아픈 것>도 ‘하나님, 나 아픈데 조기 발견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. 나 병들면 어떻게 해요? 힘 있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사랑하지요.’ 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 앞에 귀염둥이 짓도 하고, 하나님과 성령님을 삶아대야 한다. <사랑하는 자>이니, 하나님도 성령님도 해 줄 것은 해 주시지만, 그 후부터는 ‘심정’에 따라, ‘마음’에 따라, ‘행위’에 따라, ‘조건’에 따라 해 주신다. <원리원칙의 하나님>이시기 때문이다.
11. 언제 하나님이 임하실지 모르니, ‘성격’도 고치고, ‘생각’도 고치고, ‘마음’도 고치고, ‘사상’도 고치고, 다 고쳐야 된다.
12.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, 그 말씀대로 도적같이 행하신다.
13. 생동감있게 뛰고 달리고 움직여야 하나님도 같이 행해주신다.
14. <애인>이면 항상 맞장구치고 같이 움직여야 좋듯이, <우리의 삶>도 하나님 앞에 그러하다. 하나님이 “예비해라.” 말씀하셨으니, <사랑하는 자들>은 그 말씀대로 늘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.
15. <구시대인들>은 기다리기만 했지, ‘다시 오는 자’가 어떻게 오는지 몰랐다. <예비>를 제대로 못 한 것이다. <기다리기만 하는 것>은 50점 밖에 안 되니, 합격이 안 된다. 기다리고, 그

리고 ‘오는 자의 심정을 알고 대해야’ 된다. 그런데 이것을 못 한 것이다.

16. 신약 때 <예수님을 맞은 자들>은 기다리고,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관심을 가지고, 마음의 문을 열고, 예수님을 쫓아갔다.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‘메시아’를 맞은 것이다. <이 시대를 따르는 자들>도 동일하다.

17. <휴거>도 ‘절대 믿고 행한 사람’만 절대 휴거 됐다. <긴가민가한 사람들>은 긴가민가하게 휴거 됐다. 그러니 그 영들이 황금성 천국에서 혼인 잔치 하는 것만 보고, 마치 바람 빠진 공이 내려오듯 내려왔다. 그러다가 <주>가 이제 말씀을 강하게 외치니, “맞다!” 하고 다시 살아나서 휴거되기도 했다.

18. 여기저기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지만, 거기에는 ‘하나님의 사람’이 없다. 오직 <하나님의 새 역사>에서만 ‘하나님의 사람’이 비바람과 눈보라를 다스리고, 바닷물을 멈추는 표적을 일으키며, 말씀으로 역사를 감당하며 펴 나간다. <북이스라엘>에는 ‘하나님의 사람, 엘리사’가 있었는데, <남유다>에는 ‘하나님의 사람’이 없었듯이, 그쪽 세계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. 오직 <섭리 역사>에서만 이 같은 역사를 해 왔다.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이다. <딱한 사람, 애인 하나> 붙잡고 해 나간 것이다.

19. 예비 안 하면, 되는 것이 없다.

20. 모든 것을 예비했기에 하는 것이지,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.

21. 예비해서 하면, 실수가 없다.

22. <흠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>에 맞추며 살기다. 자기를 온전하게 함으로 <주의 마음>에 맞춰 살기다.